# 기억을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작곡동인 『소리목』 공연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 "1989년 4월에 창립한 『소리목』의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진실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작곡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 과 함께 느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계성 있는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 작곡동인 『소리목』 고문 최승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번 공연은 『소리목』이 연속으로 기획하고 있는 연주회의 첫 번째 시리즈로, <책이 있는 음악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목』은 2016년부터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로 선택한 작품은 201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트릭 모디아노의 공꾸르상 수상작이자 대표작인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작가를 첫 기점으로 잡은 것은 한불 수교 130주년이라는 가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의 높은 문학적 성취 뿐 아니라 그의 작품이 반영하는 현대성과 수많은 예술적인 영감에서 기인합니다. 전후 서구 세계를 배경으로 흔들리는 자아를 표현하는 그의 작품 세계는 마르셀 프루스트 이후의 전통적 프랑스 문학의 계보를 잇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음악회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은 작곡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외부 공모를 통하여 두 작품을 선정하였고, 『소리목』 회원 공모를 통한 여섯 작품을 포함하여 총 여덟 작품이 오늘 연주됩니다. 특히 젊은 음악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 이 오늘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sorimok.org

'당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 <b>기억의 조각들 (2016)</b> Fragments of Memory for Violin, Viola and Cello Vn. 윤여영 / Va. 이지윤 / Vc. 장우리							재 홍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2016)* Rue des boutiques obscures for Vi Vn. 윤여영 / Pf 문정재	olin and Piano					신 5	혁 진
'잃어버린 기억들'							
<b>되돌아보다, 그 때 (2016)</b> The Moment, Look Back on for Flute, Cello and Piano FI. 정수안 / Vc. 장우리 / Pf. 박미정							유 라
재구성 (2016) Restructuring for Violin and Piano Vn. 윤성원 / Pf. 박미정	)					한 <sup>-</sup>	경 진
I n t e	r m	i	S	S	i	0	n

# 흐릿한 기억의 저편에서 (2016) 유 도 원

Beyond the Blurred Memories for Flute and Piano with small loud speakers Fl. 정수안 / Pf. 문정재

# '나의 기억은 확심하가?'

소설 속의 소설 (2016)	김 윤 진
Un roman dans le roman for Clarinet, Violin, Viola and Piano	

Cl. 송호섭 / Vn. 임성윤 / Va. 이지윤 / Pf. 문정재 / Cond. 김진수

#### 세상에서 길을 잃다 (2016)\* 이 혜 란

Lost in the World for Clarinet, Viola, Percussion and Piano Cl. 송호섭 / Va. 이지윤 / Per. 윤재현 / Pf. 문정재 / Cond. 김진수

#### 기억의 포맠 (2016) 박은경

L'écume autour des souvenirs for Flute,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Fl. 정수안 / Cl. 송호섭 / Vn. 임성윤 / Vc. 장우리 / Pf. 박미정 / Cond. 김진수

103

## Q.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단절, 관계의 단절, 감정의 단절 등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기 롤랑은 흥신소 동료인 위트 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비록 후반 에 부분적으로 연인과 동료와 당시의 사건들을 기억을 하지만 이미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후입니다. 과거에 죽어버린 연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단지 상상할 수밖에 없고, 즐거웠던 동료와의 관계도 단지 추측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 Q. '단절'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 롤랑과 그의 동료들은 전쟁(제 2차 세계 대전)을 피해 스위스로 피신하다 일행의 배신으로 겨울 산 속에서 길을 잃고 그 충격으로 기억도 잃어버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과 배신에 있습니다.

# Q. 기 롤랑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억을 잃은 현재의 기 롤랑 자신은 그 아무것도 아닌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고, 사진 속에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세 사라져 버릴 연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루엣이나 연기가 아닌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이 곡에 나타나는 몇 개의 짧고 서로 상관없는 음악적인 조각들은 소설속의 주인공 기 롤랑의 기억의 조각들을 나타낸다. 어떤 기억의 조각들은 기 롤랑이 과거에 길을 걷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기억들(처음 제시되는 비올라 솔로 파트)이기도 하고, 혹은 연인과의 사랑의 기억(첼로 솔로 파트), 어떤 기억들은 잔인한 전쟁의 기억(바이올린 솔로 파트)이다.

이 곡에 쓰인 여러 음악적 조각들은 소설에서의 기억처럼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조각들과 이어서 나오기도 한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서로 겹치기도 한다. 끝맺음은 아픈 전쟁의 기억으로 결말을 맺는다...'

<기억의 조각들...> 프로그램 노트 중



# Q. 현대 음악이 지금보다 넓은 관객층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술적 감동은 일종의 '공감' 행위입니다. 흔히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기초적 인 사회성의 시작인 것처럼 음악도 가장 쉽게 공감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날씨, 야구, 점심 메뉴와 같이 피상적인 소재의 연속으로는 공허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깊은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음악을 통한 예술적 감동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중 음악은 '익숙함'을 통해 보다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술로서의 음악은
늦은 시간 와인 한, 두 병은 비우면서 진지한 대화의
꽃을 피웠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익숙'하기 보다는 '낯선' 것이고, '일반적'이기 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로 먼저 쉬운
공감을 얻어내면서 시작한 대화가 지극히 '낯설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값진 만남의 시간일 것이고, 예술적 감동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술은 '일반적이고 익숙'한 것부터
'낯설고 개인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신혁진 (b. 1976)

연세대학교 작곡과 학사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작곡과 석사
The University of Michigan 작곡과 박사
2012년 ARKO 창작음악제 관현악 작품 "까치소리" 발표
2014년 개인작품발표회 "음악과 영감"
2015년 대중음악앨범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발매 현재 (사)한국작곡가협회 행정이사, 21세기악회 사무총장, 건국대, 국민대, 명지대, 제주대 출강 '... 201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통속적 탐정 소설의 형태를 가지고 담백한 어조로 기억과 과거, 존재에 대한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오랫동안 과거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사설 탐정으로 살아왔던 주인공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자신을 마치 제 3자를 조사하듯이 찾아가는 기묘한 분위기,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많은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기록하고 마치 자신이 그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묘한 홍분감, 그리고 차차 드러나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에 남겨진 사람 들의 비극 등이 이 소설의 매력이다.

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이 작품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탐정 소설의 분위기, 밤 도시의 뒷골목을 증거를 찾아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축축하고 이슬 섞인 듯한 공기의 느낌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잠시나마 주인공이 가정한 인물에 과거의 자신을 비춰보는 뗼량콜리,

그리고 과거에 대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의 비극과 허탈함 등의 정서와 이미지를 음악적 주제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의 기대감과 <del>홍분을</del> 음악적 발전 형태로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고통 허무의 간정을 느낄 수 있게 음악을 매듭지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곡가 본인의 최근 관심사인 음악에서의 패턴과 색채, 인상 그리고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악 형식은 부분에 따라 경과적(transitional)이기도, 또는 분할적(sectional)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순적이면서도 굳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작곡가 본인의 절충적(eclectic)인 취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프로그램 노트 중

#### Q. 글과 음악,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고 글로 쓰여지면서

페터 한트케의 소설 <어느 작가의 오후>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언어가 그로 하여금 깊이 숨을 쉬게 했고, 그를 세계와 새롭게 맺어주었다." 말과 글,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은 대부분 바로 전달되고 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한 말은 고칠 수도 없고, 또한 많은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말이라는 그릇은 그렇게나 작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유라 (b. 1983)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및 석사 ACL-Korea 신인콩쿨 우수상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젊은 작곡가 공모 연주 <서울창작음악제> 공모 연주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소설 속 많은 문장들 중 "글자들이 춤을 춘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문장으로부터 곡의 구상을 시작하였다. 문장 중 '글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억과 연관되는 단어들을 생각하였고 회상(reminiscence)과 추억(remembrance), 두 단어의 시작인 're'를 음이름 '레'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곡의 전체적인 음정 구조들은 D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그로부터 다양하게 파생되면서 여러 음정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정 구조들은 곧 일곱 개의 화성과도 연결되면서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소설 속 시간적 흐름의 변화, 다시 말해 현재와 과거의 혼재를 곡 안에 담아 보았고, 이 때 무엇보다 소리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 소리들을 통해 전체적인 세 부분의 구성 안에서 하나의 큰 시간적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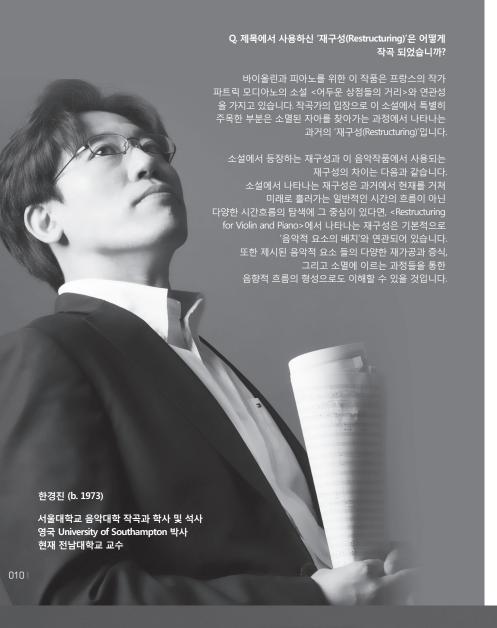
곡의 제목인 〈되돌아보다, 그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특정한 '그 때'를 돌아보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나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롤란처럼...'

<되돌아보다, 그 때> 프로그램 노트 중

그렇다면 글과 음악은 어떨까요? 이 둘은 모두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고 다듬어져 더 많은 것을 담아냅니다.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열려 있는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 들뢰즈는 "음악을 듣듯이 책을 읽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은 글과 음악의 상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관되는 작업을 하거나 그에 대한 표현들을 합니다.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인터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책을 쓰는 건 음악 연주와비슷하다"라고 말하고, 밀란 쿤데라는 '소설적 대위법'이라는 용어를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음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글쓰기란 협소한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든 몸의 방향을 바꾸는 유희이다"라고 말한 롤랑 바르트의 비유는 곡을 쓰는 작곡가들에게도 마찬가지아닐까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과 음악은 밀접하게관계되어 있습니다.



'...재구성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이 작품에서의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두 악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선적 진행과 호흡의 형성 및 결합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배치(placing), 병치(juxtaposition), 단편화(fragmentation)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진 재결합 과정들을 거쳐 새로운 음향들을 창조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재구성> 프로그램 노트 중

이를 위해 기존의 시각에서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음향적 소재들의 새로운 결합 형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고, 결합을 위한 소재의해체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텍스쳐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제시되는 독립적 요소들은 다른 성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서로다른 수직적 짜임새를 낳습니다. 즉, 제한된 요소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원형 그대로 사용하되 이들의 결합 형태에 변화를 줌으로써 동기의발전과 전개를 전제로 하는 방식과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치'에 대한 고민은 음악적인 호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품전체의 구조 및 형식의 문제와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Restructuring for Violin and Piano>에서 만들어진 형식은 다양한 배치를 위한 프로세스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역설적으로 두 파트의 작곡에 있어서 음고나 음형 등의 음악적 매개변수 (parameter)들이 논리적인 선택의 과정 아래 만들어졌으며, 작품의음향 흐름 내에서 전후의 음악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인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 Q. 작품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소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은 여러 정보들이 뇌 안에서 특정 형태로 저장되어 재구성되는 현상입니다. 기억은 여러 개의 조각(fragments)들로 저장된 후 다시 재조합 되며, 이러한 과정들의 총합의 결과물은 결국 '나'라는 것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기억의 총합이 아닌 몇몇 기억의 조각들만으로는 '나'라는 것을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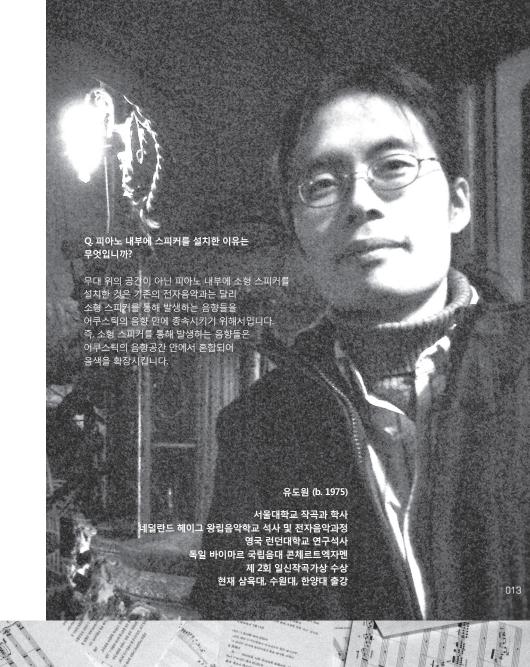
이와 같이, 음악 역시 분절되어 있는 짧은 음악의 조각들만으로는 하나의 작품이 구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음악들의 조각들이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하나의 생명력을 갖는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에서 주인공의 단절되고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퍼즐처럼 맞물려가며 주인공의 잃어버린 존재적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 작품도 <흐릿한 기억의 저편에서(Beyond the Blurred Memories)> 라는 표제 속에서 서로 개연성이 없고 분절된 세 개의 음악적 소재들을 기억의 조각들로 설정하여 서두에 등장시키며 작품이 시작됩니다. 각각의 음악적 소재들은 동음반복, 점묘적인 요소, 클러스터 음향입니다. 이렇게 배치된 세 개의 음악적 소재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기 롤랑....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묻는다. 그의 불완전한 기억의 파편들은 소설 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구성된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의 주인공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현실 속 인간들의 기억의 메커니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는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지극히 불완전한 기억의 파편들이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에 의해 개개인의 뇌 속에서 재구성이 되어 기억을 형성한다.

이 작품에서도 기억의 조각들을 상징하는 단절된 음악적 재료들이 플루트, 피아노와함께 피아노 안에 설치된 작은 스피커를 통해 작품 초반에 등장한다. 이 중 피아노 안의 스피커를 통해 발생하는 음항들은 작곡가가 설정한 음악적 재료들과 연관되어 사전에 녹음된 음항과, 실시간으로 변조되는 음항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단절된음악적 재료들은 마치 소설속 주인공의 기억의 조각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악안에서 개연성을 갖고 재구성 되어 형태를 완성해 나간다...'

<흐릿한 기억의 저편에서> 프로그램 노트 중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간혹 열린 결말들을 본다. 작가는 결말을 정확히 맺지 않고, 보는 이에게 상상의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의문의 행적으로 남는 12년의 공백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주인공 기 롤랑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나의 상상을 통해 〈소설 속의 소설〉로 만들어 보았다.

첫 악장은 소문의 시체가 자신의 사라진 애인인지 확인 할 길이 없어서 의심과 괴로움에 떠는 주인공의 모습, 두 번째 악장은 홀로 남겨진 채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친구를 찾아 헤매는 주인공의 모습, 마지막 악장에서는 망명을 시도하였지만 사기를 당해 좌절된 주인공이 머무르던 곳을 계속 꿈에서 보게 되는 이야 기로 이루어진 나만의 소설을 세 개의 악장 〈1. 그녀일까?〉, 〈2. 불안의 도주〉, 〈3. 남십자성의 추억〉으로 만들어 보았다...'

<소설 속의 소설> 프로그램 노트 중

백지에 생각나는 이런 저런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소설이될 수도 있고, 이야기나 그림, 아니면 아주 짧은 음표 몇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끄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설정이 되기 시작되는데 이럴 때면 아주 작은 희망에 마음은 기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소리를 내지만 아무 말이 없고,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이 없는' 음악에 어떻게 말하는 재주를 부릴 수 있을까요?

새로우면서, 나만의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부터는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이런 저런 소리를 만들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가려질 때까지 힘이 듭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의 고통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리지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뭍을 향해 노를 젓듯이 음표를 적습니다. 불타는 열정과 에너지는 없지만 하나씩 곡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기쁨이 생깁니다. 행여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곡도 있지만, 10년 전의 마음이 지금의 제 마음과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10년 후에도 흔들리면서도 작곡을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아이디어는 소리가 됩니다.

⊥015

# Q.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에서 다뤄지는 중요 키워드인 '두려움'은 이 책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기 롤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여러 사람을 쫓고 기억을 더듬어 갑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던 프레디는 자신의 친구 였으며 그가 흔적을 쫓던 게이 오를로프 역시 자신의 애인이 아닌 친구의 애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의문의 남자 페드로라고 여기게 되고 그의 애인인 드니즈와 프레디와 게이와함께 '므제브'라는 곳을 도피했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실패하고드니즈까지 잃게 된 사실을 기억해 냅니다. 그는 위험에처해 신분을 위장하며 파리 생활을 했으며 친구들과함께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의 기억은 단절되었으며 이 모든 실마리를 풀어줄 친구 프레디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2번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로마' 라는 주소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느끼는 어두운 감정들을 담아내는 것이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 Q. <Lost in the World>에서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글과 곡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자아에 대한 불안, 두려움 등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다. 유한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삶에서 우리 모두는 이 책의 주인공 기 롤랑처럼 평생 자아를 찾아가는 탐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곡에서 드러내고자 한 중요한 주제는 '어두운 이미지의 불확실성'이다.

스네어 드럼의 독특한 음색과 클라리넷과 비올라의 중처음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며, 피아노의 다양한 주법 사용과 서스펜디드 심벌즈의 사용은 이런 분위기를 강화시켜준다. 음악 소재의 배치와 사용은 책의 내용의 흐름을 반영하며, 서로 대립되는 소재들이, 기억을 찾아가는 시간의 흐름에 끼어드는 부차적인 인물들의 내용처럼 갑자기 단절되었다 다시 등장을 반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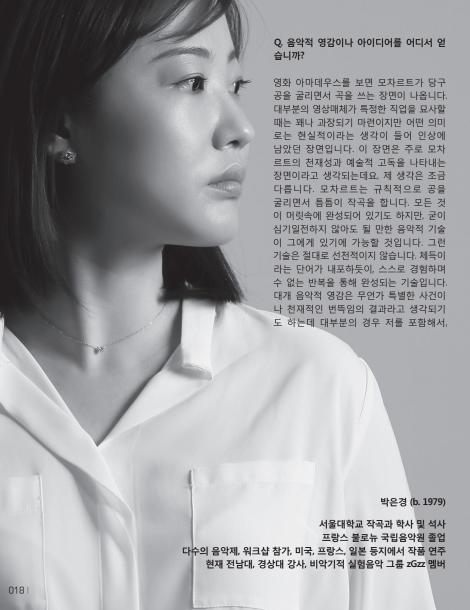
확실하지 않은 자아를 상징하는 불안정한 미분음들, 여러 개의 중심 음들의 혼재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탐험은 하나의 중심음 요소로 귀결되어 클라이맥스에 이르지만, 책 내용처럼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해체되며 끝나게 된다...'

<세상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 노트 중

# 이혜란 (b. 1975)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졸업 불로뉴 국립음악원 졸업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 수료 이화여대 작곡과 박사과정 수원대, 한세대, 협성대 강사 역임 작악회, 신음악학회, 여성작곡가회, ISCM, 창악회 회원





그보다는 훨씬 소박한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악적 사운드 그 자체일 때도 있고 어떤 컨셉이나 개념일 때도 있으며 개인적인 감상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한편 으론 그것이 무엇이든 거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것을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영감은 '그때 그때 다른 곳에서 옵니다' 이는 작곡가의 개인적인 취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나 스토리, 떠오르는 장면들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음악회는 주제가 특정 문학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스토리의 구조'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 Q. 아이디어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작품화 하십니까?

이것 또한 작곡가마다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소리 그 자체로 들려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음악적인 모티브가 되면, 그 모티 브를 통해 중심 아이디어를 최대한 표현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上昇)'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면 음형적 상승, 음역적 상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디어가 작품 전체를 관통할수록 더더욱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흔히 작품의 아이디어는 하나 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각 악기의 혼란으로 구현할지 또는 소리의 혼란, 타이밍의 혼란 등으로 구현할지 등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게 됩니다. 그 경우 어떤 식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배치할지가 작곡가의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개인의 인상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며. 혹 잊고 있던 것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개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 또한 자의적인 해석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조망을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으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건 자체의 조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기 롤랑의 자아찾기와도 맞닿아있다. 이에 각각의 사건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자의적, 비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이에서 파생된 각각의 패턴은 전체적인 인상을 각각 다르게 제시한다. 소설의 테마가 되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세 개의 단수하고 단편적인 모티브로 치화하여 각각의 모티브가 개별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전개되며, 그 순서는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개별적으로 진행된 모티브는 하나의 파트를 끝까지 작곡한 후, 그 안의 섹션을 나누어 다시금 순서를 재배열하였는데, 이 때 다른 모티브와 합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모티브들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모티브의 단편만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 > 작품의 종결구는 음색적 변화를 포함한 모티브의 반복구로 이루어져, 모호한 주인공의 기억과 불완전한 결말을 암시한다. 음형 자체를 매우 미니멀하게 설정하였으며,

> > > 모티브의 인상을 달리 설정하여 발전시켰다...'

<기억의 포말> 프로그램 노트 중

퇴색된 느낌의 음색, 주법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지만, 과연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장르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편식'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편식을 하기 도 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가 며 깨닫는 것은 편협한 시야, 편중된 귀, 편식과 같이 한쪽 쏠림 현상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에게 늘 '균형감' 있는 인생의 안정감과 묘미를 가르치려 애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태생적 환경이 서양 조성음악에 기초하 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 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 화성적 역할이 두드러 져 우리에게 명확한 조성적 안정감을 주는 바로 크, 고전, 낭만음악,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음악 을 들을 때 매우 친숙함을 느끼고, 여기서 행복 감 내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현대음악이라는 장르의 소리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현대 음악에서조차 우리가 조성음악을 대했던 방식 즉, 기능 화성적 조성감과, 친숙한 화성의 안정감, 약간의 불협화와 그 해결에서 오는 긴장과 이완 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행복감을 느낍니 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주 가끔 만나는 현대 음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성적 카타르시스를 찾지 못하고, 뭔가 어긋난듯한 어려운 마음만 품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한가지 간단한 제안을 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의 <인상, 일출(Impression, soleil levant)>이라는 점점이 색칠된 인상파 회화 작품이 걸려 있습니 다.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꿈(The dream)>이라는 입체 파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몇 대의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 준(1932~2006)의 기이한 작품들이 눈에 들어 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보시며 혹,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모나리자(The Mona Lisa)>,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과 비교하며 정확한 구도가 잡혀 있지 않다고, 혹은 명확한 선이 없고 선명한 색상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시며 작품을 바라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유로운 갤러 리의 공간과 그 순간 멈추어 있는 시간은 우리 로 하여금 고민하고 사고하며 작품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분명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화가의 의도와 철학을 어렴풋이 읽어내려 할 것입니 다. 그리고 불명확한 어떠함도 각자의 '나'에게로 와서 다시금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 하며 나만의 이야기로 마음에 새겨질 것 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게 되는 현대음악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음악회장이 '갤러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까지의 조성음 악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각각의음악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이해해보려는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떤 작품은 재료자체가 소리가 아닌 리듬일 수도 있고요, 어떤작품은 멜로디보다 음색이 주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간의 울림이나 쉼표가 중요 구성 요소일 수도 있겠죠. 물론, 미술 작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적 여유와 배려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에 비해 현대음악 작품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한가지 아쉬움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묘미이고 또 하나의 새로운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과거가 될 것이고, 모든 과거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으며 새로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언제까지 현대음악을 어렵다고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의 고민과 개입, 의미의 발견은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패러다임 속에서현대음악 작품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인간의아름다움의 경계를 허물어가며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편식'을 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마음과 귀를 열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김수혜 (b. 1971)

서울예고 졸업 서울대학교 작곡과 학사 및 석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작곡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박사 UC Davis, 건국대, 명지대, 서울대, 추계예대 강사 역임 현재 가천대, 숙명여대, 중앙대 출강





### 김진수 Director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피바디 음대 작곡전공 석사(MM)
-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 음대 박사(Ph.D)
- 건국대 교수, 중국 북경 수도사범대학 객좌교수 역임
- 현재 숙명여대 교수, 앙상블 Eclat 음악감독



# 윤성원\_ Violin

- 예원학교, 서울예고 수석졸업,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입학 재학 중 도독
- 뤼벡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학위 취득
- 이화 경향 공쿨, 한국일보 공쿨, 조선일보 콩쿨, 중앙일보 콩쿨 1위 입상
- 모스크바 필하모닉, 홍콩 필하모닉, 불가리아 소피아 방송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서울시향등과 협연
- 모스크바 국제공쿨, 영 비에니아프스키 콩쿨, 리스본 국제콩쿨, 노보시비르스크 국제콩쿨 심사위원
- 건국대 교수, 앙상블 Eclat 리더



# 윤여영\_ Violin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재학 중 도독
- 독일 쾰른 음악대학 졸업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수석 졸업
- 현재 ProArte Chamber Ensemble 멤버



# 이지윤\_ Viola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과정 졸업
- 예일대학교 아티스트 디플롬 졸업
-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 수워시향 부수석, 현대음악 앙상블 Eclat,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멤버



# 장우리\_ Cello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졸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졸업
- 독일 쟈브뤼켄 국립음대 Aufbau studium /Solist examen 박사 졸업
- 중앙일보 콩쿠르 1위, 칼 다비도프 국제콩쿠르 2위
- 인천 광주 전주시향 객원수석 역임, 연세대 출강



#### 문정재\_ Piano

- 독일 하노버 국립 음대 학-석사 및 실내악-솔로 최고 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 Bologna, F. Schubert, Minerbio, Ovada, Alessandria, Duchi, Torino Racconigi 국제 음악 콩쿠르 모두 우승
-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부천, 원주, 청주시향, Bologna Symphony Orchestra, Janacek Philharmonic Orchestra, Hannover Opera Orchestra, NDR Radio Philharmonic, Vienna Symphony Orchestra와 협연



# 정수안\_Flute

-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졸업
-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및 최고연주자과정(KE) 디플롬
- 동아콩쿨 입상, 독일정부 장학금 DAAD 수령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현재 목원대, 총신대 콘서바토리 출강, 현대음악 앙상블 Edat 단원, 플루트 앙상블 아디나(Adina) 악장



### 박미정\_ Piano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도헝가리
-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국립음대 최우수 졸업(Artist Diplom, Teaching Diplom)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 헝가리 부다페스트, 풀란드 브로클라우,헝가리 피취 리스트 국제 콩쿨 한국인 최초 입상, 그리그 국제 콩쿨 1위, 그리그 심사위워 특별상
- 하노버 국립음대 강사 역임
- 현재 예원, 서울예고, 추계예술학교 출강,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송호섭\_ Clarinet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 졸업
- 스위스 바젤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klasse) 졸업
- 부산콩쿨, 동아콩쿨 1위 입상
- 충남교향악단 수석 역임, Henri Selmer Paris 아티스트
- -현재 Ensemble DIAPASON 리더, 현대음악앙상블 Eclat 멤버, 세종대 겸임교수, 연세대, 경희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계원예고 출간



#### 임성윤\_ Violin

- 서울예고, 오벌린 음대 학사, 줄리어드 음대 석사
- 맨하탄 음대 연주자과정, 럿걸스 주립대 박사 전액장학생으로 졸업
- Lima International Competition, Lilian Fuchs Chamber Music Competition 1등
-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멀킨센터, 스타인웨이 홀등에서 다수의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대구시향, 창원시향 등 협연, 음악춘추 유망신예 초청독주회
- West Virginia University Adjunct Faculty 역임
- New York Philharmonic, Philadelphia Orchestra 객원단원
-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워



# 윤재현\_ Percussion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 France CRR de Rueil-Malmaison 수석 졸업
- 서울시립청소년 교향악단 팀파니 수석, 유라시안 필하모닉 수석
- 서울시립교향악단 팀파니 객원 수석 및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등 객원
- 현재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4PLUS 단원, 상명대, 서울예고, 예원 출강

1 023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작곡동인 소리목 제 37회 정기연주회

책이 있는 음악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2016.11.25 급 오후 7:30 일신홀

주최 : 작곡동인 소리목 주관 : 👪 현대문화기획

후원 : OKOREAN COMPOSERS (사)한국작곡가협회 🌱서울특별시 🚟 제품문화제로 💓 한국문학에요위원회

이 공연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으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